

인공와우이식 청소년의 발성치료 효과(예비연구)

강남세브란스병원 이비인후과 음성클리닉¹, 대전소리언어청각센터²

남도현¹ · 염용혁¹ · 최은아² · 조선아¹ · 최홍식¹

청각장애인의 목소리의 특징은 목쉰 듯하거나 찌는 듯하고 무딘 소리를 내며 비음을 많이 사용하며, 높은 피치로 말하고, 문장의 처음부터 끝까지 같은 톤으로 유지되기도 하며 때로는 비정상적으로 높낮이가 변화한다. 목소리의 크기는 지나치게 큰 소리를 내거나 작게 말하는 경향을 보이며, 다른 모음임에도 불구하고 중성화 되어 상대방에게는 비슷하거나 같은 모음을 발음하고 있는 것으로 들리게 된다. 이러한 목소리의 개선가능성을 알아보려고 인공와우 수술을 받은 지 평균 10.6 ± 4.5 년이 경과한 받은 남자 청각장애 청소년(평균 연령 16세) 9명을 대상으로 발성치료 기법을 사용하여 훈련 전 후

를 문장읽기를 통하여 무성음, 유성음, 마찰음, 최고 강도, 최저 강도, 평균 강도, 최고 발화주파수, 최저 발화주파수, 기본 발화주파수, 최대 성대접촉률, 최저 성대접촉률, 평균 성대접촉률을 비교하여 청각장애인의 음질개선의 가능성에 대하여 알아보려고 하였다. 결과로는 음성 전후의 비교에서 무성음, 유성음, 최고 강도, 최저 강도, 평균 강도, 최고 발화주파수, 최저 발화주파수, 기본 발화주파수의 유의도 값이 $p < 0.05$ 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최대, 평균, 최저 성대접촉률도 훈련 후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통계적인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